

프랑스 비에르종 선교지 소식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25 :40)

한국에서 휴가를 마치고 다시 선교지 비에르종으로 오면서 교회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35킬로그램의 무거운 짐을 공항에서부터 전철을 갈아타고 기차로 비에르종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참 고생스럽습니다. 감사하게도 비에르종역에 내려서는 저를 픽업하러 나와준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도와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제는 간병인으로 일하는 콩고 출신이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자매가 예배 후 교회에서 나오며 제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사는지 묻길래 봉사로 교회를 섬긴다고 했더니 저를 생각하고 챙겨준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누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잠을 못 자고 사역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군분투하지만 선교사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기운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자매를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주의 종인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데 그것은 작은 자를 기억하고 도움의 손길을 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위로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선교사로 살면서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4 :15-16)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구역 모임을 하고자 3회에 걸쳐 리더 교육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역을 위해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부탁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주일학교 신입교사 교육을 하고 교사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모임이 시작됩니다. 소그룹 모임인 구역예배로 모여 말씀과 교제 그리고 기도를 통해 교인들이 믿음으로 함께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부터 제자 훈련이 8주간 있습니다. 5명의 지원자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고전9 :22

주 중에 영어 회화 클럽과 한국어수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28일에 비에르종 주민들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돕기 위한 한국의 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어 진행되고 이 행사에 오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이어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차량 문제

주일에 대중교통이 없고 교인들을 픽업해야 할 필요가 커져서 차가 있어야 하는데 지인 선교사님이 쓰던 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번역가가 제 서류를 번역하면서 등록번호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데 1년 4개월이나 지난 지금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하순까지는 꼭 프랑스 운전면허증이 나와야 하는데 차를 받아 등록할 수 있으니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교사이지만 목회자로서도 섬겨야 하는데 제가 불어 사용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설교 준비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게 필요한 언어 구사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으로 바빠서 불어 수업에 가야 할 지 망설이다가 기도하며 사람들을 만날 겸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사람인 디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에르종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개신교회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게 되었다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며 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전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란 사람인 교회의 건물 주인 칼릴과 에브라임 형제와도 만나고 있고 티벳 사람들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이강례 선교사 (서상춘, 준희, 혜빈, 혜원)

1. 동역할 일꾼이 세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역리더 교육, 신입 교사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지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역모임이 잘 이루어져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10월에 시작되는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4. 10월 28일에 있을 우크라이나 돕기를 위해 한국문화의 밤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5. 영어회화 클럽, 한국어수업 등으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소서.
6. 제게 사역에 필요한 지혜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공급하소서.
7. 프랑스 운전면허증이 속히 발급되어 받게 하시고 수동기어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소서. 체류증 발급이 잘 되도록 도우소서.
7. 가족의 건강을 돌보시고 모두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소서.